

1017(월) 마가복음 11-13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

메시아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(1:45, 5:20, 6:32, 7:36).

예수님은 결코 숨겨질 분이 아니었습니다(2:2, 3:8, 20, 6:14).

그러나 우려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.

❶ 예수님께 무지했던 사람들

예수님은 <호산나> 환호 속에 입성하십니다(11:9-11).

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관례처럼 이를 외쳤고, ^{크렌펠드}

벳바게, 베다니 주민들은 유월절 순례객들을 맞아

환영인사처럼 <호산나>를 건넸습니다. ^{허주}

호산나를 외치고 건네는 사람들 중에는

예수님을 그저 순례객 중 하나로 알았을 것입니다.

예수님이 정말 그 말을 받아 구원을 행하실 메시아,

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(시118:25-26).

❷ 예수님의 제자들

제자들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,

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를 떠올리며 기뻐했습니다(11:7, 눅9:9).

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위에 오르실 때,

내 자리는 어디쯤일지 들떴습니다(10:37, 삼하7:10-17).

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들

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약 190년 전 쯤

호산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한 개선장군이 있었습니다.

헬라의 폭압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유다 마카비였습니다.

백성들은 그 때처럼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

누구에게든 종려나무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

예수든 바라바든 상관없었습니다(15:11). ^{아담 해밀턴}

예수님은 분명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(8:29).

그 진정한 의미는 완결 이후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.

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?

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을 내가 결정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마가복음 11-13장